

# 전북특별자치도 멋진 비상 응원

전북도립국악원, 도민과 함께하는 송년국악큰잔치 '전북은 특별해龍' 20일 개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이희성)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2023년 송년국악큰잔치 '전북은 특별해龍'으로 용의 해 2024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멋진 비상을 알린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백여 차례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다채로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도민들에게 나누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특히 창극단 정기공연 '우리애매', 관현악단 정기공연 '아르누보', 무용단 정기공연 '고섬섬'은 각기 다른 매력과 고유 특색을 온전히 담아내 큰 호평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공연장 발걸음을 되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은 도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해 진행된 공연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레퍼토리를 엄선해 무대를 채운다.

또한 팝페라 그룹 라 클라세(La Classe)가 특별게스트로 출연하고 국악인 김나리가 사회를 맡아 송년 공연을 연말의 축제 분위기를 물들일 계획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에 어린이예술단과 특별무대 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첫 무대는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아리랑 랩소디·청청'으로 시작된다.

'아리랑 랩소디'는 아리랑의 변화 가능성을 시도하고, 한국의 전통 리듬에 서양 리듬, 그리고 다양한 화음 진행을 조화롭게 만들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다.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2023년 송년국악큰잔치 '전북은 특별해龍' 포스터

이어 '청청'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소리를 온전히 담아낸 곡으로 악기마다 선율적 주제를 제시해 생동감 있는 곡의 전개를 보여준다.

두 번째 무대는 도립국악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막창극을 창극단이 준비했다.

단막창극 '놀부 박타는 대목'은 이 시대의 자화상을 놀부가 타는 박을 통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소리 본향의 명성에 걸맞게 농익은 소리를 보여주는 도립창극단 전원이 출연해 소리의 참 맛을 해학적으로 구사한다.

이어 어린이교향악단이 지브리모음곡과 아기상어로 우리에게 친근한 애니메이션 OST 메들리를 선보이고 드보르작의 신세계교향

곡 4악장을 연주한다. 네 번째는 2023년 무용단 정기공연 '고섬섬'에서 5장에 속한 제(祭)-바다를 섬기다'로 새로운 풍어제를 이야기한다.

바다의 노여움을 달래고 파도를 다독이고 자 지내는 원당제의 굿을 바탕으로 한 본 무대는 남성군무로 구성된 바라춤으로 재구성된 무대로 최근 선보인 정기공연에서 큰 박수를 받은 작품이다.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는 다섯 번째 무대는 관현악단의 2023년 정기공연 '아르누보'에서 연주된 국악관현악 '적벽'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국악관현악 '적벽'은 판소리 적벽가의 눈대목 조자룡 활 쓰는 대목과 불 지르는 대목을 색채감 있게 표현한 곡으로 장단의 변형과 이국적인 화성을 통한 웅장함과 극적인 효과를 통해 전쟁의 긴박함을 변화무쌍하게 풀어낸다.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무대는 라 클라세(La Classe)의 가요메들리로 막을 내린다.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화음으로 무장한 라 클라세는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로 도민들에게 2023년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2024년 새로운 해의 희망을 전달한다.

공연 종료 후에는 로비에서 2024년 전라북도립국악원 달력 2종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본 공연은 초등학교생 이상 도민을 위한 무료공연으로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공연 일주일 전부터 전라북도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단 남은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성 인정



전주시, '전주문화재야행' 문화유산 야행 부문 우수사업 선정

전주시는 지난 14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2023 전주문화재야행'이 문화유산 야행 부문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선정한 '최우수 야행'과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꼭 가봐야 할 야간관광 100선'에 이어 세 번째 우수성을 공인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6년부터 8년째 개최된 전주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콘텐츠 사업이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전주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가 주관한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에는 나흘간 16만여 명의 구름 관광객이 다녀가며 '홍행 보증수표' 입을 입증했다.

'풍패지향 왕의 공원을 거닐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야행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는 올해 '문화재 조선 퍼레이드'와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등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돼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또, '경기전 쯤미실'을 비롯한 사전 예약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김제시, '우물 속 선비정신, 학수고대하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4일 2023년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우물 속 선비정신, 학(學)/수(隨)/고(鼓)/대(帶)하다'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추진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김제시가 주최하고 (사)홍문화예술기획(대표 류명희)이 주관했다.

이 사업은 백산면 요교마을에 위치한 석정이정지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생가와 주변 인

프라를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인물 재조명과 주변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지역민이 문화해설사로 참여하고 행사 장소를 지역 곳곳을 활용하여 마을에 활력을 띠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았으며 지역민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참가자 550여 명이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 전개

ESG 환경경영 실천 · 탄소중립 일환 1회 용품 줄이기 촉진 위해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최근 전당 야외마당에서 ESG 환경경영 실천과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은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1회 용품 줄이기 운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 직원들은 전주 한옥마을과 구 원도심 일대를 돌며 친환경소재로 제작된 다회용(리유저블) 컵과 겨울철 필수 아이템 핫팩을 나누어 주며 지역 사회와의 소

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 카페 10여 곳을 방문, 친환경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1회용품 사용의 감소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당은 한편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기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사회 회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캠페인을 마



련했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을 위해 탄소 저감, 친환경 제품 사용, 더불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번 모두 문을 닫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